

# LÉVY GORVY

레비고비 뉴욕, 이탈리아 토리노의 다채로운 문화를 담은 작가 캐롤 라마 개인전 개최

## Carol Rama: Eye of Eyes

캐롤 라마: 눈의 눈

2019 년 1 월 24 일 - 3 월 23 일

Lévy Gorvy  
909 Madison Avenue



좌: 캐롤 라마 <무제> (1944) 종이에 색연필, 수채, 31 x 21 cm. 사진: Elisabeth Bernstein. © 캐롤 라마 아카이브, 토리노.

우: 캐롤 라마 <무제> (1975) 종이에 색연필, 고무판, 37.3 x 23.7 cm. 사진: Elisabeth Bernstein. © 캐롤 라마 아카이브, 토리노.

뉴욕 - 레비고비 뉴욕은 이탈리아 아방가르드의 대표작가 캐롤 라마의 개인전 <눈의 눈>을 개최한다. 미술사가 플라비아 프리게리 (Flavia Frigeri)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라마의 출생지이자 2015 년 작가가 타계할 때까지 평생을 거주했던 도시 토리노를 중심으로 그만의 예술적 내러티브를 풍성하고 확장된 시각으로 선보인다. 특히 라마의 작품세계를 작가가 생전 관람했던 다양한 전시, 서로 교류했던 동료 예술가들은 물론 그들과 함께 고민했던 조형적, 개념적 문제의 맥락에서 조명함으로써 그가 경험했던 폭넓은 예술적 지형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70 여 년의 오랜 작가 생활 동안 캐롤 라마는 몸을 욕망과 저항의 표현 도구로서 탐색하며 비전통적이고 개인적 의미가 담긴 다양한 유기적 재료와 산업 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비전을 작품으로 구현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라마는 당시 미술계의 전통과 어법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오늘날 동시대 미술의 주요 화두인 섹슈얼리티와 재현, 권력 사이의 미학적 역학관계를 일찍이 탐색하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캐롤 라마는 일생 동안 토리노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큐레이터 플라비아 프리게리가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주듯이 토리노 도시 자체가 작가에게 세상을 열어주었다. 작가가 활동할 당시 토리노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구층이 유입되면서 도시만의 부유한 역사와 새로운 노동자층이 만나 복합적이고 풍요로운 문화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운동 역시 이러한 예술적 토양을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갤러리와 미술기관들이 자리매김하면서 수많은 국제적인 전시가 개최되었고 당시 소개되었던 작가들 중 상당수가 이후 20 세기 미술 거장으로 성장했다. 라마 역시 이 같은 환경 안에서 펠리체 카소라티(Felice Casorati),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Pier Paolo Pasolini),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 카를로 몰리노(Carlo Mollino) 와 같은 인물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전시 큐레이터 프리게리는 라마 아카이브의 지원을 통해 작가가 수집했던 도록 컬렉션 중 토리노에서 열렸던 전시 도록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작가와 당시 미술계와의 교류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했다. 라마가 소유했던 토리노 전시 도록 중에는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한스 벨머(Hans Bellmer),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파울 클레(Paul Klee), 이브 클랭(Yves Klein),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 파블로 피카소, 만 레이(Man Ray), 카즈오 시라가(Kazuo Shiraga)와 같은 작가들의 전시가 포함되어 있다. 레비고비의 이번 전시는 이를 포함한 아카이브 자료를 함께 선보임으로써 라마의 작품세계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출품작 중에는 라마의 초기 수채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오페라 n.18>(1939)과 <아파시오나타(열정)> (1941)은 작가만의 원초적이고 생기 넘치는 시각을 담은 작품들로, 대담하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이유로 1949년 토리노의 가베르갤러리(Gaber Gallery)에서 열린 작가의 첫 개인전에서 검열되었다. 또 다른 출품작인 <브리콜라주> 연작은 라마가 1964년부터 1968까지 이어온 아상블라주 작업이다. 작가가 밀라노와 토리노 기반의 구체예술 운동에 잠시 활동한 직후 제작한 이 작업은 라마의 평생 친구였던 시인 에두아르도 상귀네티(Edoardo Sanguineti)가 모든 작품의 제목을 짓기도 했다. 밀도 높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각 작품들은 박제, 인형 눈, 수술 도구, 모피, 소총탄 등 독특하면서도 구체적인 오브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1970년대에 작가가 이어서 작업하기 시작한 일련의 미니멀리스트 추상 작업에서는 고무판이 주요 재료로 활용되며 이는 자전거와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운영했던 작가의 아버지에 대한 레퍼런스로서 등장한다. 작가가 24세가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자살하고 남은 가족은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작품에서 주로 잘려 있거나 납작하게 눌린 형태로 등장하는 고무판과 타이어들은 기하 추상의 언어로써 늘어진 남근 혹은 늪은 피부조직을 연상시킨다.

발렌티나 카스텔라니(Valentina Castellani)와의 협력을 통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토리노의 문화적 환경이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캐롤 라마의 작업을 소개함으로써 작가의 작품세계에 담긴 예술적 비전을 더욱 깊이 있게 조명한다. 동료들과 함께, 때로는 그들의 작업에 반응하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캐롤 라마의 작업은 급진적이고 의미 있는 자취를 남겼을 뿐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 **큐레이터 플라비아 프리게리 (Flavia Frigeri)**

큐레이터이자 미술사학인 플라비아 프리게리는 현재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미술사학과와 런던 소더비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프리게리는 이에 앞서 테이트 모던에서 인터내셔널 아트 큐레이터로 재직하며 국제적인 시각으로 팝아트를 재해석한 <The World Goes Pop> (2015)전을 공동 기획했다. 전후 유럽과 미국 미술 전문가로서 이탈리아 마술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외에 < Henri Matisse: The Cut-Outs>(2014)와 <Paul Klee: Making Visible> (2013)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저서 <Women Artists> 가 Thames & Hudson 에서 2019 년 봄 출간될 예정이다.

### **레비고비 (Lévy Gorvy)**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 갤러리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뉴욕 메디슨가 909 번지, 런던 메이페어에 위치한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 년 설립한 상하이 사무소에 이어 2019 년 3 월 센트럴 홍콩에 세 번째 전시공간을 개관할 예정이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www.levygorvy.com | @levygorvy

### **홍보담당자**

Marta de Movellan, Director of Communications, marta@levygorvy.com  
Andrea Schwan, Andrea Schwan Inc., andrea@andreaschwan.com  
Sam Talbot, sam@sam-talbot.com

###